

한형조 무문관 탐방

13

청세의 가난

*어느 승이 조산화상에 물었다. "저, 청세는 왜 되고 가난합니까. 스님께서 좀 배풀어 주십시오." 조산이 말했다. "이보시오, 청세. '에.' '청원의 백가주를 석 잔이나 들이 키고도 입술을 축이지 못했다 하시오.'"

*나 해가 말한다. "청세는 어찌하고 시비를 걸었다. 조산의 안목이 건너오는 수작을 벌써 간파했다. 그렇더라도 어디 말해보라. 대체 어디가 청세가 술을 마신 자리인가."

*송하여 가로되, "가난하기 법단과 같은데, 기세는 항우와 같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감히 부를 다투다니."

曹山和尚, 因僧問云, 清稅孤貧, 乞師賑濟, 山云, 稅梨, 稅應諾, 山曰, 青原白家酒, 三峯喫了, 猶道未沾唇, 無門曰, 清稅輸機, 是阿心行, 曹山具眼, 深辨來機, 然雖如是, 且道, 那裏是稅梨美酒處, 頌曰, 貧以爲道, 氣如項羽, 活計難無, 敢與與諸.

청세는 자기 신세가 딱하고 고단하다 했다. 고(孤)는 형제도 부모도 없는 외로운 고아라는 말이니, 빈(貧)은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말이다. 가난은 불평하고 끔찍한 것이라, 누구나 이 글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 그게 인 지상정이다. 그런데 그 가난을 오히려



이에 포함된다. 그래서 수기란 '은근술책 반응을 떠 보다.' 시비를 걸어보라' 정도로 해석된다. 조산은 청세가 보내는 도전장을 받고 웃었다. 조산은 조용히 물었다. "이보시게, 청세. <전등록>이나 <선문염송>에선 조산이 청세를 부른 다음, 이리 가까이 오라는 주문(呪)이 이렇게 되잖아. 조산의 공력을 청세가 감당하지 못했다. 그저 '에'라는 대답으로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진짜 부자는 부를 자랑하지 않는다. 재벌 총수들 가운데 상당수가 십년이 넘는 구두를 꿰매 신는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던 기억이 있다. 진짜 가난한 자도 가난을 떠벌리지 않는 법이다. 조주에게 누군가가 물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지고 있지 않음은 어찌합니까?" 조주는 "그걸 내려놓게"라고 충고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지고 있지 않는데 뭘 내려 놓으라 하십니까." "그럼, 그냥 들고 있게." 조산은 청세가 실은 대단한 부자(?)임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했다. "술을 못 마신다더니 알고보니 독한 술을 사발로 들이켰구나." 청원 백가주는 지금의 복건성(福建省) 천주(泉州)에서 나는 유명한 술이다. 우리로 치면 문배주나 안동소주에 해당할 것이다. 화두의 눈은 바로 여기이다. 청세가

法數로 배우는 불교

<23>

모든 생명은 본능적으로 자기라는 존재가 실재한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육신과 기억하고 인식하는 마음을 자기 자신으로 삼고 좀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는 생명들의 의지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기에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 하며 자기를 존속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누구든지에게 "당신은 실재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묻는 사람을 향해 "그렇게 묻는 당신은 없는가?"하며 되물을 것이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나는 실재한다'라는 모든 생명들이 지닌 지극히 보편적인 관점에 대해서 놀랄게도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른바 부처님 말씀에 생명의 구조와 본질을 밝힌 오온설(五蘊說)이 그것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보겠다. 불교에서는 우선 생명의 구조를 다섯가지가 화합하여 나타난 거짓 존재(假有)로 여긴다. 즉 큰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소위 생명들이 그렇

게도 있다고 여기며 아끼고 보존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다섯가지의 요인들이 서로 만나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지 실재는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것을 좀더 부연해서 말하면 중생에게는 자아라고 할만한 것이 실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인 오온이

존재의 거짓현상 다섯가지 "자기라는 것 실재하지 않는다"

화합하여 나타난 인연성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온(纏)이란 인도어 스칸다(skandha)를 번역한 말로 '무더기' '덩어리' '쌓임'이라는 말로도 쓰고 있다. 오온을 이루고 있는 것들 중에 먼저 색(色)은 생명들이 지니고 있는 육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본래 색이라는 말은 물질의 빛깔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오온 설에서는 몸을 가리키는 말로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몸을 이루고 있는



정영철 작 '생존'

키고 행동하려는 마음의 작용(行), 마지막으로 그렇게 일으킨 모든 마음의 작용들이 모인 의식(識)이 그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기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외부의 물질이 서로 만나서 이루어진 육체와 역시 바깥 대상들에 의해 만들어진 마음이 합해진 존재로서 집착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화합해서 존재하는 것은 참이 아닌 것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왜 그토록 실재한다고 믿고 있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근원적인 반문을 해 보라고 하셨는지 이해 될 줄로 믿는다. <원각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어리석은 무명심(無明心)으로 인하여 사대로 이루어진 몸과 바깥 대상을 인연으로 만들어진 마음에 자기가 있다고 착각한다"고 하였다. <반야심경>의 오온개공(五蘊皆空)이라는 것도 오온은 허깨비, 거짓 현상이라는 뜻으로 깨달음에서 볼 때 "자기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다만 중생들의 잘못된 가치관 즉 무명심(無明心)에 자기와 다다고 여기고 몸과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온에 대한 그러한 어리석음을 수행으로 깨뜨려서 실재한다는 환상과 착각으로부터 벗어나 '무아의 도리' '공의 도리'를 체득하고 일체의 고통을 해결하는 일은 불자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강물속에서 목말라 죽다니..."

"곳간에 넘치는 보물 분별심이 못보는구나"

러 친미한 사람들이 있었다. 옷 한벌, 밥그릇 하나, 비늘, 염주, 삭도 하나, 물 마실 때 별례를 거를 도구 하나만을 안고 산 수도승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언제나 떠도는 무주(無住) 유랑의 삶. 가난을 통해 그들은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욕망을 줄이며, 분노와 슬픔을 자제하는 법을 배웠다. 노자(老子)에는 이런 말이 있다. "학문(學問)을 하게 되면 나날이 늘어갈 것이고, 도(道)를 행하게 되면 나날이 줄어들 것이다. (爲學日益, 爲道日損)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가진게 너무 많아서이다. 어제의 기억, 욕망의 흔적, 그리고 내일의 우려와 기대가 현재의 나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것이 나를 옹위하고 있어 불편하게 그치지 않는다. 선은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한 훈련이다. 그리하여 '술 곳 하나 꿀맛자리'조차 없을 때 그때 대자유의 세계가 열린다고 가르친다. 지금 청세는 그 가난을 성취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면서 조산의 반응을 떠보고 있다. 시비를 거는 편이 아무래도 위대롭다. 해개는 이를 '청세는 어찌하고 시비를 걸었나(輸機)'라고 우려한다. 수(輸)는 '실어보이다', '은근히 드러내다'라는 뜻이다. 기(機)란 기계(機械)에서 짐작하듯 격발이나 운동의 연쇄반응기제를 뜻한다. 자극과 반응, 질문과 응답, 도전과 응전이

술을 마신 자리는 대체 어디인가. 다시 말하면 청세가 지고 다니는 재산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처음 이 이야기를 대학시절 스즈키의 <선불교입문>(Introduction to Zen Buddhism)에서 읽었다. 그가 따라간 해석의 길래는 지금 읽어준 것과는 성품 다르다. 앞에서는 '가난'을, 과거의 모든 흔적과 미래의 기투, 그리고 현재의 욕망까지 탈각한 절대적 '무아'로 읽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급스럽게(?) 읽지 않을 수도 있다. 가난은 의롭고 고승스러운 것이다. 마음의 안정과 열반의 고요와는 먼 사바세계의 운명. 청세는 그 질곡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조산에게 매달린다. 조산은 그러나 사바의 질곡한 고통이 자승자박이라는 것을 일깨운다. 곳간이 보물로 넘쳐나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모른다. 너는 흙사 '쌀가마'를 옆에 두고 굶어죽어 가는 사람'이나, '강물 속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과 같다. 태어나면서부터 덧인 무명(無明), 그로 인한 중종의 분별(分別)이 너의 본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 그 장애를 걷어내라. 그때 그때는 백가주 석잔에 거나하게 취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불교와 수학 16 우주론 김용운

불교에 큰 영향을 준 고대인도 사상 '우파니샤드'는 우주 안의 삼라만상은 처음에는 겨자씨 크기의 '프라푸만'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프라푸만이 폭발하여 헤어질 수 없을 만큼 조각으로 되고, 그 하나 하나가 삼라만상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본래부터 프라푸만의 조각에 내장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특별히 인간만이 신의 배려에 의해 생겼다고 믿지 않는다. 산천, 초목, 벌레, 짐승이 모두 똑같이 프라푸만에 내장되어 있던 지혜와 능력을 이어받고 있다. 본 난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교적 사고와 유대·기독교의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다름을 이야기 해왔다. 그 차이의 원인은 이미 천지창조에 있었던 것이다. 유대·기독교에서는 이 우주 속에 있는 삼라만상은 신(上帝)에 의해 만들어졌다. 신은 땅위의 먼지로 남자를 만들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하나로 만들었다. 동물은 신에 의해 인간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으며 지식을 높여 얼마든지 전지 전능의 신에 가까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21



우주는 확산·수축 반복 에너지 집합 빅뱅전 겨자씨 크기에 삼라만상 내장

워져 갈 수 있다. 한편 현대 우주론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50억년 전에 일어난 'Big Bang'으로 알려진 대폭발로 생겼다. 그때 전우주가 바늘의 끝에 올라갈 정도의 작은 덩어리로 응축되어 있었다. 그것이 폭발하면 광속도로 확산해 간다. 처음 1초간에 지금이 60만 킬로미터의 구가 되고, 다음 2초, 3초도 같은 속력으로 팽창한다. 요즘의 과학 지식으로 관측하고 계산하면 끝이 지구로부터 약 150억 광년은 먼 곳에 있으며 계속 팽창하고 있다.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이 걸리는 거리이다. 전우주의 무게가 바늘의 끝에 걸린 정도의 크기이므로 엄청난 에너지가 뭉쳐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빅뱅의 반대 현상이 블랙홀이다.

빛이건 별이건 옆에 있는 것은 모두 빨아들이는 소용돌이와도 같은 것이다. 현대 과학은 어떤 시점에서 팽창은 역전하며 수축하여 다시 한 번 우주는 처음 빅뱅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 즉 바늘의 끝에 올라갈 정도의 크기가 되어 버린다고 한다. 빅뱅 그리고 블랙홀, 이것은 몇 번씩이나 되풀이하는 것일까?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 빅뱅의 순간에 앞으로의 우주의 운명, 형성 과정이 계획되어 있었는가 여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만일 오늘의 이 현실이 계획의 일부에 있었던 것이라면 엄청난 정보가 빅뱅의 순간에 마련되어 있었음을 틀림없다. '우주 운행과 법칙(계획)'은 인간이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는 큰

본 문제이며 인류 문명이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도 모든 철학자가 계속 씨름해 온 문제다. 어쨌든 이 빅뱅의 발상은 프라푸만의 폭발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우주의 빅뱅, 확장, 블랙홀, 수축의 전개는 바늘 끝과 같은 작은 공간에 전 우주가 대응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주의 크기는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주의 크기를 말하는 일조차 무의미해진다. 바꾸어 말하면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즉다 다즉일' (一即多 多即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프라푸만과 빅뱅 직전의 응축된 존재는 공명적으로 우주 삼라만상을 내장하고 있었으며 그간 우주는 확산과정에 있었다는 생각이다. 겨자씨 보다 작은 것이 지금의 전 우주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때 '오늘의 1m는 미래의 1m와 같을까?'라는 물음도 생긴다. 1m의 길이는 지구 자오선 상의 큰 원의 4000만 분의 1로 정해져 있다. 우주가 확산, 수축하는 과정에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동시에 같이 변화하는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항상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두고 불교에서는 절대성의 부정, '진리는 어디에도 없다' (隨處作立處皆眞(일체즉진))고 말하며 현대 과학은 상대성 원리로 설명한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정신 육체를 얻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 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글레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관단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계산제 복용 : 기아·공복감이 없다.
- 생수, 해독차, 염분·자연당·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 염불삼매수련·선관삼매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받고 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 (美 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선관단식(禪觀斷食)가이드북을 우송해 드립니다.

● 체 험 사 례 ●

"본인은 78세의 수의사인데,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 사일초과일날 용님선원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감잎차와 미네랄이 풍부한 산야초효소 등을 섭취하면서 커피관장을 한 결과 몸속의 노폐물이 피부 밖으로 모두 분출되고, 숙변이 2회 대량배출되어 현재는 피부와 머리카락이 어린이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어, 오늘은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퇴소를 합니다. 1997. 6. 1. 이 승호 합장 (경남 창원시 남양동 동성 APT 5동 1203호, Tel. 0551-62-4475)

수련장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 내 : (0593)34-1115~6, 012-598-1015

"불교달력 전문 생산 인쇄소에서 행사용 부채와 벽걸이 족자를 권해 드립니다."

부 채

- 500개 이상 주문 하시면 사찰 이름, 주소 및 원하시는 문안을 넣어 드립니다.
- 2,000개 이상 주문시 사진이나 그림을 원하시는 대로 넣어 인쇄해 드리고 출장 촬영하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족 자

- 원단 : 청·백공단, 적색공단
- 크기 : 90cm x 30cm
- 인쇄 : 금박 및 적색인크 (경면주사 약간 첨가)
- 내용 : 반야심경, 보살삼매론, 마음을 다스리는 글 등 20여종

* 주소 및 기념하시고 싶은 내용을 인쇄해 드립니다.

* 연락주시면 견본 및 카탈로그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 강진정판사 : 서울시 중구 오장동 69-2
전화 (02)269-9755, 275-9472 FAX (02)268-2391

포켓용 불자 독송집

불자님들께서 항상 지니면서 수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집·제작 하였습니다

- 기본판·국판판 256p·고급비닐커버 ▶ 정가 2,000원
- 중보판·국판판 352p·고급비닐커버 ▶ 정가 2,500원

* 법보시 하실 사람 환영합니다

우리말 지장경 석일화편저

-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비닐커버
- 법보시가격/4,500원
-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신앙영험록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김로출판사 ☎(02)723-4306~7 FAX 738-8682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한국동로터리)